

지역 소식통



부안 보안면, 마을순회 좌담회

부안군 보안면(면장 한동일)은 주민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는 찾아가는 마을순회 좌담회를 개최해 현장행정을 펼쳐 면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마을순회 좌담회는 영 전리 영전 마을을 시작으로 관내 44개 마을을 순회하며 신임 면장 부임인사와 함께 군이나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특히 보안면은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에어컨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 등 어르신들 안부를 살폈다.

면민들은 "변경을 잘 이끌어 살기 좋은 보안으로 만들어 달라"며 "주민들도 변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일면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을 통해 앞서가는 보안면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읍면 복지허브화 교육

고창군은 최근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 맞춤형복지팀, 주민복지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 복지허브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 맞춤형복지팀 9개소와 2018년 신설예정인 5개 읍면 주민복지팀의 실무자들이 복지사각지대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 당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복지사태, 운영 노하우 공유 및 하반기 민관협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읍면 복지허브화는 읍면사무소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시행예정인 민의 역량 강화와 군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소통과 사례공유를 지속적으론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지역복지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인구절벽 위기 극복한다

부안군, 오늘부터 한달간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접수

부안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인구규모에 따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려고 군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필수조건으로 판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늘리기를 적극 추진 인구 6만 명 회복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려고 16일부터 한달간 진행한다.

공모내용은 실질적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 투자유치, 귀농귀촌활성화 교육지원, 인구유출방지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군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거나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우편·팩스로 접수해도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10월 중 심의위

의회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우수상(1명) 30만 원, 우수상(3명) 각 20만 원, 장려상(5명) 각 10만 원 등 시상금도 지급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인구증가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 수요자인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군정에 반영코자 제안 공모를 하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내일부터 전북도 사회조사 실시

시민 삶의 질·사회구조 변화상 파악...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정읍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구조 변화상을 파악하고 지역 정책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2017년 전북도 사회조사 실시한다. 올해로 11번째 실시하는 사회조사는 전북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며, 7개분야 63개 항목으로 ▲교육(5개) ▲보건·의료(6개) ▲주거·교통(9개) ▲환경(3개) ▲여가·문화(10개) ▲안전(4개) ▲도(13개)·시(13개) 특성항목이다.

조사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0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가구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조사하며,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여 회수하는 조사방법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삶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에 반영된다"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은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응답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광복 72주년 순국선열·애국지사들 뜻 기려

고창군, 독립유공자 현화·분향식 거행

고창군이 15일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국권을 되찾은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아산면 공설묘지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현화·분향식을 가졌다.

이날 현화·분향에는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이호근·장병식 도의원, 군의원,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광복 72주년을 기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한 날인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지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귀한 뜻을 이어받아 고창군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신임 부안해양경찰서장 박상식 총경 취임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산·물·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천혜의 세계적 관광지인 행복한 부안 자랑스런 부안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에 앞서 두려움에 앞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제3대 부안해양경찰서장에 취임한 박상식(56)총경은 취임소감을 이같이 밝히고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배양하며,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고, 부안해양경찰서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자"고 주문했다.

박 서장은 취임식 이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비함정 전용부두와 파출소, 해수욕장 등 해상치안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업무과외에 나섰다. 박 서장은 정읍 태생으로 부안과 2남을 두고 있고, 금오공대 졸업 및 해군 소령 전역 후 1997년 경감 특채로 해양경찰청에 입문했다. 이후 해양경찰청 조합단 조합지 원팀장, 항공기항계장, 사업기획계장 등을 거쳐 2017년 총경으로 승진 후 해양경찰청 해양항공과장으로 근무해오다 이번에 부안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전임 조성철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고교생대상 1일 공무원 체험행사

고창군이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공무원 직업체계의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1일 공무원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14일 고창고와 고창여고 1,2학년 재학생 35명과 인솔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용장 수여, 선서문 낭독, 공무원 제도 안내, 군정방향 이해, 고창군 홍보 영상 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인솔 공무원과 1:1 멘토·멘티 결연을 맺고 각 부서에 배치돼 행정 업무를 참관하고 직접 근무도 해보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근무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박우정 군수는 "청소년기에 다양한 직업에 대해 경험해 보는 것은 진로를 보다 빨리 결정하고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진로체협의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해 갈 것"이라며 "이번 체험 행사가 지역 인재들이 진학과 진로 결정에 앞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역량을 갖춰 고창군과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되는 동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민모(고창고) 군은 "평소에 공무원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고 관심이 있었는데 멘토 공무원께서 경험담도 들려주고 친절하게 조언도 해주셨고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며 "직접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니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느낌이고 군민들의 가까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 공직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친환경쌀 생산농가 역량강화 교육 가져

정읍시 친환경연합회(회장 안광원) 회원들은 친환경농법 및 유기농업 실천사례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최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0년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전남지회장인 강계서 강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제2청사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농업 생산환경 다변화와 친환경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 강생기 정읍시장은 "힘들고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도 뜻이 우리의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격려"의 시간을 가졌으며,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 판매장을 연계하여 농업인 소득이 증대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곰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94-8980
www.gangsanwine.com